

QACSO(Questionnaire of Attitudes Consistent with Sexual Offending)의 타당화 연구

장 은 영 이 수 정* 이 장 규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국립법무병원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의 성에 대한 인지왜곡을 평가하기 위해 Lindsay Whitefield, Carson, Broxholme, Steptoe(2004)가 개발한 QACSO(Questionnaire of Attitudes Consistent with Sexual Offending) 검사를 국내에 소개하고, 한국어로 번안한 QACSO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집단을 가장 잘 변별하는 A항목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를 위해 성범죄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거나 성범죄 전과가 있는 지적장애인 32명, 지적장애가 없고 보호관찰 중인 성범죄자 88명, 성범죄 전과가 없고 수도권 내 복지관에 소속된 일반 지적장애인 31명, K대학교 대학생 72명, 총 22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내적일치도와 문항-총점 상관, 평균을 고려한 문항분석을 통해 원 검사 107문항 중 총 58문항(임상척도 53문항과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5문항)을 A항목에 해당하는 최종 문항으로 제안하였다. 7개의 임상척도(강간 및 여성에 대한 태도, 관음증, 노출증, 스토킹, 데이트 성폭력, 동성 성폭력, 아동 성폭력) 53문항의 내적일치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Cronbach's $\alpha=.90$), 각 임상 하위척도의 총점과 문항 간의 상관 평균은 .38-.44로 양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유사한 척도들과의 비교를 통해 58문항이 적절한 수준의 타당도를 가지고 있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를 다른 집단과 잘 변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QACSO, 인지왜곡, 지적장애인, 성범죄자, 성범죄에 대한 태도

† 교신저자 :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산 94-6
Tel : 031-249-9198, E-mail : suejung@hanmail.net

성범죄는 피해자가 겪게 되는 심리 및 신체 외상의 정도가 여타 범죄에 비해 심각하므로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성범죄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개입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들은 대부분 일반 성범죄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처럼 별도의 개입이 요구되는 비주류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심은 많이 부족하다. 심지어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의 성범죄와 관련한 별도의 조사가 존재하지 않아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조차 한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성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처우와 치료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도구가 필요한데, 지적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일반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평가도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국내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들을 위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평가 도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적장애 인구 중 성범죄자의 비율이 일반 인구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다(Hayes, 2002). Lindsay (2002)는 20세기 전반에 걸쳐 지적장애와 범죄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대중의 인식이 있었고,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범죄자들에게서 성범죄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부 연구들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 간에 높은 학대 비율이 나타났음을 보고 하면서, 지적장애 영역에서 성범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성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신과적 평가 결과 약 18% 정도가 지적장애 혹은 경계선적 지능을 보였으며 전체적인 지능 수준도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신경백, 이영준, 김경란, 김현정, 송동호, 2012).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461건 중 42%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었고(Furey, 1994),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들이 성별과 관계없이 나이 어린 대상을 상대로 성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보고되고 있다(Blanchard, Watson, Choy, Dickey, Klassen, Kuban, & Feren, 1999). Walker와 McCabe(1973)은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들이 남자 아동을 피해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Cantor, Blanchard, Robichaud, Christensen(2005)이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 혹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보다 더 낮은 지적 능력을 보인다고 보고한 것과는 일맥상통한다.

지적장애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중범죄인 만큼, 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국내 연구, 나아가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들에게 특화된 평가도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영미권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들의 특성과 치료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 도구 개발과 기존의 검사들을 일부 수정하여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표준화하는 연구들이 실시되고 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검사 도구의 종류는 위험성 평가, 자기 조절 문제 평가 등 다양하지만,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들의 성과 관련한 인지왜곡을

확인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면서, 지적장애인의 성과 관련된 인지왜곡을 평가하는 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성범죄에서 지속되는 태도 즉, 성과 관련된 인지왜곡은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들의 범행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Abel, Becker, Cunningham-Rathner, 1984; Marshall & Barbaree, 1989; Marshall & Eccles, 1991; Murphy, 1990; Salter, 1988), 성범죄를 저지른 지적장애인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지적장애인의 인지왜곡을 비교한 연구 결과들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들이 성과 관련한 인지왜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Broxholme & Lindsay, 2003),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들의 주요 특성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성과 관련된 인지왜곡은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의 평가와 치료에 있어서도 역시 핵심적인 영역이다. 특히 개발방지 치료프로그램과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에 있어서 그러하다(Lindsay, Michie, Whitefield, Martin, Grieve, Carson, 2005).

사실 근래에 인지왜곡 모델과 같은 다요인 모델이 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 있어 큰 흐름을 이루면서, 지적장애가 없는 일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강간이나 아동 성범죄에 관한 인지왜곡을 평가하는 도구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목들이 개념적으로 너무 복잡하거나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시행하기에는 용어가 어렵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의 인지왜곡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몇 가지 살펴보면, 아동 성추행범들에게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ABCS(Abel Becker Cognition Scale; Abel, Becker & Cunningham-Rathner, 1984)는 학습이나 독해 능

력이 부족한 피검자가 문항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호한 질문을 제거하거나 수정하였는데, 이 수정버전은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자의 인지왜곡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검사로 평가 받고 있다(Boer, Dorward, Gauthier & Watson, 1995). 하지만 원본과 수정본 모두 성범죄자와 비성범죄자를 변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다(Kolton, 1996; Kolton, Boer & Boer, 2001). 다음으로 자신의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피해자 공감 왜곡 척도인 VEDS(Victim Empathy Distortion Scale)는 Beckett과 Fisher(1994)에 의해 개발된 이후 Keeling, Rose, Beech(2007)에 의해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현재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의 성과 관련된 인지왜곡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검사 도구는 QACSO(Questionnaire of Attitudes Consistent with Sexual Offending)이다. QACSO는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들의 성에 대한 인지왜곡을 측정하기 위하여 10년 넘게 수정을 반복하여 개발되고 있는 검사로, 처음 공식적으로 출간된 Broxholme와 Lindsay(2003)의 예비연구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인지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강간 및 여성에 대한 태도(rape and attitudes to women), 관음증(voyeurism), 노출증(exhibitionism), 데이트 성폭력(dating abuse), 동성 성폭력(homosexual assault) 및 아동 성폭력(offences against children)의 여섯 가지 영역에서 의도, 책임감, 피해자 인식의 세 부분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이후 2004년에 Lindsay, Whitefield, Carson, Broxholme, Steptoe가 QACSO 매뉴얼을 발간하며 스토킹(stalking and sexual harassment) 척도와 타당

도 척도에 해당하는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척도를 추가하고,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상관관계와 변별능력이 부족한 항목을 제거하여 총 107 문항으로 QACSO 검사를 발전시켰다(Lindsay et al., 2005).

QACSO는 통계적 특성에 따라 A, B, C 항목으로 분류된다. A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r > .35$),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동성 성폭력 척도를 제외하고 $\alpha > .79$, $r > .35$), 집단을 잘 변별한다. 따라서 임상 현장에서 검사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B 항목은 타당한 통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한다. 그러나 전체 문항과의 상관이 높지 않아 내적일치도를 떨어뜨린다. 즉, 핵심 개념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지라도, 관련된 유사 개념을 측정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C 항목은 낮은 통계적 특성을 보여 집단을 잘 변별하지 못하고 성범죄자의 인지를 설명하기 어려워, 집단 차이를 비교하거나 치료나 평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임상가가 추가적인 정보수집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QACSO는 기본적으로 자기보고식 검사이지만, 언어이해 능력과 같은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의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되며, 검사자가 검사에 사용되는 개념(성 지식)을 주어진 질문을 통해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 설명하여 충분히 이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진행된다. 피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개의 질문 문항을 이해 수준에 맞추어 나누어서 질문할 수 있다. 채점은 사회문화적 가치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회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답변은 0점으로,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응

답은 1점으로 채점한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왜곡의 점수가 큰 것이다. QACSO는 기본적으로 ‘그렇다, 아니다’의 이분적 응답으로 채점되지만, 그렇게 대답한 이유를 확인하여 인지왜곡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검사자 판단에 따라 “모르겠다”는 답변을 채점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점 체계는 1, 0이 아니라, 2, 1, 0이 되며, “모르겠다”는 답변을 1점으로 채점한다. 이러한 방식은 답변이 방어의 일환인지 실제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높은 총점과 점수 범위의 민감성을 가지며, 속임수나 방어적인 반응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4년 버전의 QACSO는 Lindsay 등(2005)이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들의 반응 패턴을 분석한 연구에서, 7개 척도의 A항목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양호한 내적일치도($\alpha > .68$, 동성 성폭력 제외 $\alpha > .79$)를 보였고, 이해하기도 쉬운 것으로 확인되었다(Flesch-Kincaid Score < 5.05).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지적장애인 집단과 성범죄가 아닌 범죄를 저지른 지적장애인 집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지적장애인 집단, 장애가 없는 일반인 집단을 잘 구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QACSO는 여러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른 지적장애인의 성과 관련한 인지적 왜곡을 줄이는 인지행동치료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에도 민감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angdon & Talbot, 2006; Murphy, Powell, Guzman & Hays,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ndsay 등(2004)이 개발한 7척도와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버전(107문항)의 QACSO(Questionnaire of Attitudes Consistent with Sexual Offending) 검사를 타당화

하여, 국내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의 성에 대한 인지왜곡 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치료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로 번안한 QACSO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 A항목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별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검사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중도탈락자 6명과 모든 문항에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거나 다수의 문항에 무응답한 피검자 5명을 제외하고 총 223명이 참여하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들의 경우, 지적장애가 있으며 구치소에 수감된 자 28명, 수도권 내 장애인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경찰 입건 이상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지적장애인 4명, 총 32명이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성으로 지적장애 외의 장애 등급을 받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와 범죄기록 조회에 동의한 자들이었다. 지적장애가 없는 성범죄자들은 최종적으로 8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는데, 모두 연구 참여와 범죄기록 조회에 동의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성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 혹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었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지적장애인들은 복지관이나 수도권 내의 지적장애인 그룹홈에 속해있었으며 성범죄 전과가 없고, 지적장애 외의 장애 등급을 받지 않은 자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성 지적장애인 31명이 포함된다. 일반인은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성범죄 전과 및 지적장애가 없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자 72명이 참여하였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QACSO 검사가 경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나, 국내 장애 등급이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 및 적응 능력을 포함하여 결정되며, 검사 실시에 있어 의사소통 능력과 성에 대한 개념, 성폭력에 있어서의 성의 강제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장애 등급이 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전제조건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대상자를 장애 등급으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다만, 가능한 기능이 좋은 2급 이상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사회복지사들에게 의사소통 및 검사 진행이 가능한 지적장애인들을 선별 받아 이들 중 K-WAIS-IV의 FSIQ 점수가 40이상이며 검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검사 실시가 가능한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검사 실시 도중 언어 및 인지능력의 한계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검사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검사 결과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검사를 중단하였는데, 이로 인해 총 6명이 중도 탈락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223명의 혼인상태는 미혼인 자들이 79.7%, 결혼 또는 사실혼의 상태에 있는 경우가 19.8%로 혼인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보다 미혼인 대상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성범죄자 120명의 범행 관련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QACSO(Questionnaire of Attitudes Consistent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집단(n=32)	일반 성범죄자 집단(n=88)	비범죄 지적장애인 집단(n=31)	일반인 집단 (n=72)
연령 평균(SD)	29.9(8.6)	35.1(10.5)	37.2(10.8)	22.3(2.6)
K-WAIS-IV				
FSIQ 평균(SD)	49.9(8.7)		49.9(8.7)	
VCI 평균(SD)		101.0(16.3)		106.4(7.7)
최종 학력(%)				
고졸 이상	40.7(13명)	84.5(71명)	29.0(9명)	100.0(72명)
중졸	25.0(8명)	11.9(10명)	16.1(5명)	0
초졸 이하	18.8(6명)	3.6(3명)	29.0(9명)	0
특수학교	15.6(5명)	0	19.4(6명)	0

표 2. 성범죄자들의 범행 관련 특성 (N=120)

본 사건의 유형(%)		현재 처분 종류(%)	
강제추행	49.0	보호관찰	53.9
강간	27.4	치료감호	22.6
강간미수	7.5	수감명령	8.7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유포	8.5	징역형	4.3
공연음란죄	2.8	벌금	4.3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	2.0	기타	6.7
기타	4.7		
성범죄 입건 회수(%)		범행 대상(명)	
초범	50.0	동성 대상 성범죄자	16
1번	22.5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	35
2번	9.2	범죄자	
3번 이상	6.7	KSORAS 14점 이상(명)	22

with Sexual Offending)

본 연구에서 사용한 QACSO(Questionnaire of Attitudes Consistent with Sexual Offending)는 2004년 버전으로, 강간 및 여성에 대한 태도

(rape and attitudes to women) 척도, 관음증(voyeurism) 척도, 노출증(exhibitionism) 척도, 스토킹(stalking and sexual harassment) 척도,데이트 성폭력(dating abuse) 척도, 동성 성폭력

(homosexual assault) 척도, 아동 성폭력(offences against children) 척도에 해당하는 7개의 임상 하위척도와 타당도 척도에 해당하는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총 10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의 임상척도 중 A항목의 내적일치도는 $\alpha > .68$ (동성 성폭력 척도를 제외하면 $\alpha > .79$)로 나타났다(Lindsay, Whitefield, Carson, Broxholme, Steptoe, 2004). 본 연구에서는 ‘모르겠다’는 응답을 포함하지 않는 ‘예’, ‘아니오’의 이분적 채점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청소년 인지왜곡 척도(Adolescent Cognition Scale)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인지왜곡을 평가하기 위하여 1985년에 Abel, Rouleau, Hilan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54개의 문항을 10개로 수정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성범죄자가 자신의 성범죄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당화, 인식,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정식 평가 척도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4이다. 피검자들은 평가를 위해 스스로 5점 Likert 척도에 응답해야 하며, 모든 문항의 점수는 1점은 가장 강한 동의 5점은 가장 강한 비동의에 해당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인지왜곡이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Wilson, 1998).

데이트 성폭력 인지도 척도

데이트 성폭력 피해나 가해 시에 그 행위가 데이트 성폭력인지를 분명히 알고 인정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ugarman(1996)이 개발하고 장운경(2002)이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데이트 강간, 데이트 성추행, 데이트 성희롱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는 1점, ‘경미한 성폭력이다’는 2점, ‘심각한 성폭력이다’는 3점, ‘매우 심각한 성폭력이다’는 4점으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의 인지도가 높은 것이다. 총 10문항으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이다(장운경, 2002).

다’는 2점, ‘심각한 성폭력이다’는 3점, ‘매우 심각한 성폭력이다’는 4점으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의 인지도가 높은 것이다. 총 10문항으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이다(장운경, 2002).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단축형(Social Desirability scale; MC-13)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평가하기 위해 Marlowe와 Crowne에 의해 1960년에 33문항으로 개발되었다(Crowne & Marlowe, 1960). 명백히 바람직하지만 사실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매우 적은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바람직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후 Reynolds(1982)가 요인분석과 문항 내적일치도 검증을 통해 5개는 긍정적 문항과 8개는 부정적 문항, 총 13개의 문항으로 단축하였다(MC-13), 이를 박중규(1999)가 번안하여, MC-13형 중 11문항을 이용하여 중고생에게 시행한 결과,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60이었고, MMPI의 L척도와와의 상관계수는 .56라고 보고하였다(박중규, 2002). 한국판 MC-13의 각 문항은 진위형으로 제시되고 사회적 바람직성 방향에 응답하면 1점을, 그렇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한다.

한국 웨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4판(K-WAIS-IV, 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IV)

지적장애인들의 지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K-WAIS-IV(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IV)는 16세 0개월부터 69세 11개월까지의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0개의 핵심소검사와 5

개의 보충소검사 등 총 15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고 K-WAIS-III의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의 4요인 구조가 K-WAIS-IV에서도 적용된다. 각 지수의 평균 신뢰도는 전체 IQ .97, 언어이해 .94, 지각추론 .92, 작업기억 .92, 처리속도 .87이다. 각 소검사는 전체평균 신뢰도가 .73~.90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평균 10, 표준편차 3의 척도점수를 갖는다(황순택, 김지혜, 박광배, 최진영, 홍상황, 2012). 또한 평균이 100점이고 표준편차는 15점의 분포를 사용하는데, 표준화 절차를 통하여 산출되는 총점은 IQ 40 ~ 160까지의 범위를 지닌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성범죄자들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는 2008년 법무부에서 성범죄자들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상황에 적합하도록 타당화한 한국형 성범죄 위험성 평가도구이다. 피검사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과거의 범죄력, 본 범죄의 유형과 내용,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총 1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 18세 이상 남성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총점 13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일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외국의 대표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들 Static-99, MnSOST-R, PCL-R과 $r > .51 \sim .54$ 의 상관관을 가지고 있고, 고위험군의 재범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1.4%), KSORAS 총점에 대한 AUC는 .813이었다(이수정, 고려진, 박혜란, 2008).

연구절차

QACSO의 한국어 번역은 국립법무병원의 연구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차로 K대학교 연구팀에서 원검사 문항의 의미를 가능한 정확히 전달하는 동시에 지적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적장애인의 언어이해 수준에 맞추어 수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후 연구 협조 기관들(구치소, 수원보호관찰소, 수도권 내 장애인복지관 및 그룹홈)을 통해 1차적으로 연구대상자를 선별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적장애인 혹은 지적장애인 성범죄자들의 경우, 관리 혹은 수감되고 있는 시설에 방문하여 연구동의서를 받고 검사 및 설문을 실시하였다. 지적장애인들은 독해 능력이 충분치 않으므로, QACSO 검사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평가자가 직접 문항을 읽어주거나 추가 질문 및 설명을 진행하는 1:1 구조화된 면담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하였고, 지능 확인을 위하여 K-WAIS-IV를 실시하였다. 검사 시간은 총 3-4시간이 소요되었다. 지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과 보호관찰소 내의 일반 성범죄자의 경우 동의하는 피검자에 한해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였으며 검사시간은 총 1시간-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모든 연구대상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실시된 설문 내용에는 나이, 혼인관계 등의 인구통계학적 질문과 전과력, 범행내용, 처분 등 비행 및 범죄 전력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결 과

QACSO의 신뢰도

QACSO 검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들 간의 내적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보여주는 Cronbach's α 를 산출한 결과, QACSO 임상척도 102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는 .89로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바람직성 5문항은 .44로 비교적 낮은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하위척도별로 내적일치도를 살펴보면, 강간 및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는 .75(25문항), 관음증 척도는 .63(10문항), 데이트 성폭력 척도는 .61(10문항), 아동 성폭력 척도는 .73(18문항)으로 적절한 신뢰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토킹 척도가 .52(16문항)로 나타나서, .60에 근접하기는 하지만 좀 더 높은 신뢰도를 위해 문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고, 노출증 척도가 .46(11문항), 낮은 신뢰도를 보여 문항의 선별과 수정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는 스토킹과 노출증이 성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경범죄로 생각하여 큰 문제로 여기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동성 성폭력 척도는 원 검사에서도 하위척도 중 가장 낮은 내적일치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기준이 되는 .60을 넘을 뿐 아니라, 집단을 잘 변별하는 몇몇 문항을 감안하여 척도에 포함되었다(Broxholme & Lindsay, 200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2(12문항)의 매우 낮은 내적일치도를 보였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동성과의 성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나 동성에게 가해지는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것이 질문의 논점을 흐려 실제 인지왜곡과 상관없이 응답하도록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성관계를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로 개념화 한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동성과의 성관계 혹은 동성 간에 가해지는 성폭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여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동성 성폭력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성에 대한 인지왜곡을 신뢰롭게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해도가 높고 전체와의 상관과 내적일치도가 적합한 문항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노출증 척도, 동성 성폭력 척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양호한 수준의 문항 간 동질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원 검사에서 총점의 내적일치도가 .95, 하위척도들의 내적일치도가 .68~.86로 보고된 것에 비해 다소 하향된 결과이다. 특히 일부 문항들이 내적일치도를 크게 저해하는 것은 물론 총점과도 부적 상관이 나타나 척도 내의 타 문항들과 다른 내용을 측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피검자들에게 좀 더 적합한 문항을 선별하거나 수정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부적절한 문항의 수정 혹은 삭제 위해 문항-총점 간 상관이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문항이 삭제될 경우 내적일치도(Cronbach's α)가 향상되는 문항 12개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12개 문항들을 제거하였는데, 이때 제거된 문항들은 원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집단을 잘 변별하지 못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던 C항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항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제외하였는데,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가 .44의 낮은 내적일치도를 가지지만 문항 수가 너무 적으므로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5

표 3. 수정 혹은 삭제가 필요한 문항

문항 번호	하위 척도 (Cronbach's α)	문항 내용	문항- 전체 상관	Kendall의 tau_b	문항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21	강간 및 여성에 대한 태도(.75)	남성은 여성을 깜작 놀라게 하거나 겁주 려고 강간합니까?	-.32***	-.22***	.78
22		남성은 여성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 강간합니까?	-.19***	-.16**	.78
32	관음증(.63)	남성은 여성을 겁주려고 쳐다볼까요?	-.20**	-.16**	.69
43	노출증(.46)	남성은 여성을 겁주려고 성기를 드러내 보일까요?	-.31***	-.22***	.51
44		남성은 여성에게 성기를 보이면서 여성 을 겁주는 것을 즐깁니까?	-.30***	-.22***	.52
49	스토킹(.52)	남성은 여성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다니니까?	-.20**	-.15**	.56
58		남성이 여성을 쫓아다니는 것은 여성을 겁주기 위해서일까요?	-.26***	-.18**	.58
63	데이트 성폭력(.61)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키스해도 괜찮을까요?	-.17*	-.14*	.73
73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나요?	-.04	-.03	.24
80	동성 성폭력(.22)	남성은 다른 남성을 겁주기 위해 강간을 할까요?	-.40***	-.29***	.30
81		남성은 다른 남성을 자기마음대로 조종 하기 위해 강간을 할까요?	-.19**	-.15**	.24
93	아동 성폭력(.73)	성인 남성은 아이를 겁주기 위해서 아이 와 성관계를 가지나요?	-.36***	-.27***	.78

문항을 유지하며 검사자가 해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정 혹은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12개 문항의 내용을 토대로 각 문항이 신뢰도를 저해하는 이유를 짐작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사회문화적 정서상 성에 대한 인지왜곡이라 보기 어려운 문항이 두 개 존재하는데, 63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키스해도 괜찮을까요?”라는 질문과 73번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나요?”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한다고 하여 성에 대한 인지왜곡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성범죄가 폭력성과 지배욕구를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10개 문항들이 내적일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이 인지왜곡을 시사하는 부정반응

(아니다)을 하여, 성범죄의 폭력성과 지배 욕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성범죄를 일탈된 성욕의 발현으로만 생각하고 성범죄에 내포되어 있는 폭력성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다, 겁주다” 혹은 “마음대로 하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폭력성이나 지배 욕구와 연관시키지 못하여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문항들을 삭제하거나 성범죄에 폭력성과 지배 욕구가 좀 더 명료하게 나타내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문항 선별

신뢰도로 선별한 문항의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 12개(C항목에 해당)를 제거한 임상척도 90문항이 원 검사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와 다른 집단을 잘 변별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임상척도 총점($F(3,216)=26.82, p < .001$), 강간 및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F(3,218)=31.86, p < .001$), 관음증 척도($F(3,218)=3.56, p < .05$), 노출증 척도($F(3,219)=8.22, p < .001$), 스토킹 척도($F(3,217)=10.09, p < .001$), 데이트 성폭력 척도($F(3,218)=13.47, p < .001$), 동성 성폭력 척도($F(3,217)=20.68, p < .001$), 아동 성폭력 척도($F(3,217)=22.83, p < .001$)로, 임상척도 총점과 7개의 임상 하위척도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그러나 각 집단별로 어떤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Duncan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상척도 총점, 노출증 척도, 스토킹 척도, 데이트 성폭력 척도에서는 지적장애인과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가 한 집단, 일반 성범죄자와 일반인이 다른 한 집단으로 분류되어($p < .05$)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가 다른 집단들과 변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및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 동성 성폭력 척도, 아동 성폭력 척도에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와 지적장애인이 가장 높은 평균을 갖는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일반 성범죄자와 일반인이 별도의 집단으로 뒤를 이어 유의미한 세 집단으로 나타났으나($p < .05$),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가 변별되지 못하였다. 관음증 척도에서는 지적장애인, 일반 성범죄자, 일반인이 한 집단으로 분류되고, 지적장애인과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가 다른 한 집단으로($p < .05$) 나타나, 지적장애인과 지적장애인 성범죄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즉, 신뢰도 분석을 통해 부적절한 문항을 제거한 총 90문항의 임상척도는 지적장애인과 지적장애가 없는 사람을 변별할 수는 있으나,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의 인지왜곡을 확인하고 다른 집단과 변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집단 간 평균 비교를 통한 문항 선별

앞서 제시한 것처럼 QACSO 검사에서 부적절한 내적일치도와 총점 간의 상관을 갖는 문항들을 제거하고 차이분석을 실시했더니, 집단 간 성에 대한 인지왜곡 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가 잘 변별되지 않았다. 이는 내적일치도와 전체 문항

표 4. 집단 간 평균비교로 선별한 QACSO 임상척도 53문항들의 집단 간 평균 및 문항-전체 상관, Kendall의 tau_b, 문항이 삭제된 경우의 Cronbach's α

문항 번호	문항-전체 상관	Kendall의 tau_b	문항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α	평균(SD)			
				지적장애 성범죄자	일반 성범죄자	비범죄 지적장애인	일반인
강간_1	.11	.11	.89	.53(.51)	.22(.41)	.29(.46)	.03(.17)
강간_3	.24***	.20***	.89	.69(.47)	.23(.42)	.39(.50)	.01(.12)
강간_4	.48***	.32***	.89	.34(.48)	.02(.15)	.39(.50)	.03(.17)
강간_8	.57***	.40***	.89	.31(.47)	.09(.29)	.35(.49)	.04(.20)
강간_10	.48***	.40***	.89	.72(.46)	.30(.46)	.35(.49)	.35(.48)
강간_13	.47***	.35***	.89	.44(.50)	.15(.36)	.42(.50)	.10(.30)
강간_14	.47***	.31***	.89	.22(.42)	.05(.21)	.16(.37)	.00(.00)
강간_16	.27***	.27***	.89	.41(.50)	.20(.41)	.16(.37)	.07(.26)
강간_18	.48***	.37***	.89	.22(.42)	.15(.36)	.29(.46)	.13(.33)
강간_19	.27***	.20***	.89	.09(.30)	.06(.23)	.10(.30)	.00(.00)
강간_23	.37***	.28***	.89	.44(.50)	.18(.39)	.42(.50)	.11(.32)
강간_24	.23***	.21***	.89	.56(.50)	.15(.36)	.13(.34)	.01(.12)
관음증_26	.54***	.37***	.89	.31(.47)	.09(.29)	.23(.43)	.08(.28)
관음증_28	.41***	.37***	.89	.50(.51)	.51(.50)	.52(.51)	.47(.50)
관음증_29	.39***	.31***	.89	.41(.50)	.24(.43)	.19(.40)	.29(.46)
관음증_30	.55***	.43***	.89	.47(.51)	.14(.35)	.32(.48)	.15(.36)
관음증_35	.25***	.23***	.89	.56(.50)	.41(.49)	.32(.48)	.40(.49)
노출증_41	.45***	.29***	.89	.13(.34)	.08(.27)	.16(.37)	.04(.20)
노출증_42	.47***	.27***	.89	.16(.37)	.05(.21)	.06(.25)	.00(.00)
노출증_45	.25***	.21***	.89	.53(.51)	.23(.42)	.13(.34)	.07(.26)
노출증_46	.26***	.28***	.89	.69(.47)	.42(.50)	.52(.51)	.53(.50)
스토킹_47	.46***	.32***	.89	.25(.44)	.10(.31)	.23(.43)	.07(.26)
스토킹_51	.22**	.21***	.89	.41(.50)	.20(.40)	.39(.50)	.47(.50)
스토킹_54	.32***	.29***	.89	.59(.50)	.29(.46)	.19(.40)	.11(.32)
스토킹_55	.46***	.33***	.89	.31(.47)	.01(.11)	.29(.46)	.03(.17)
스토킹_57	.51***	.34***	.89	.22(.42)	.07(.26)	.10(.30)	.01(.12)
스토킹_59	.31***	.22***	.89	.28(.46)	.01(.11)	.23(.43)	.07(.26)

(계속)

문항 번호	문항-전체 상관	Kendall의 tau_b	문항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a	평균(SD)			
				지적장애 성범죄자	일반 성범죄자	비범죄 지적장애인	일반인
스토킹_61	.20**	.16**	.89	.53(.51)	.17(.38)	.19(.40)	.11(.32)
스토킹_62	.26***	.27***	.89	.63(.49)	.38(.49)	.48(.51)	.43(.50)
데이트_64	.45***	.35***	.89	.38(.49)	.18(.39)	.39(.50)	.31(.47)
데이트_65	.47***	.35***	.89	.22(.42)	.13(.33)	.29(.46)	.11(.32)
데이트_68	.52***	.40***	.89	.41(.50)	.15(.36)	.39(.50)	.23(.42)
데이트_69	.51***	.37***	.89	.56(.50)	.08(.27)	.19(.40)	.03(.17)
데이트_70	.45***	.36***	.89	.38(.49)	.10(.31)	.32(.48)	.23(.42)
데이트_72	.12	.16**	.89	.47(.51)	.13(.33)	.10(.30)	.04(.20)
동성_75	.26***	.18**	.89	.16(.37)	.06(.23)	.19(.40)	.04(.20)
동성_76	.43***	.35***	.89	.38(.49)	.16(.37)	.29(.46)	.08(.28)
동성_79	.39***	.23***	.89	.16(.37)	.03(.18)	.16(.37)	.01(.12)
동성_82	.23**	.19**	.89	.38(.49)	.21(.41)	.10(.30)	.00(.00)
동성_83	.37***	.27***	.89	.34(.48)	.05(.21)	.26(.45)	.03(.17)
동성_84	.47***	.38***	.89	.59(.50)	.11(.32)	.42(.50)	.04(.20)
아동_85	.43***	.39***	.89	.38(.49)	.17(.38)	.39(.50)	.38(.49)
아동_89	.21**	.18**	.89	.44(.50)	.14(.35)	.13(.34)	.01(.12)
아동_90	.21**	.20***	.89	.53(.51)	.22(.42)	.35(.49)	.03(.17)
아동_91	.23**	.19**	.89	.66(.48)	.24(.43)	.48(.51)	.04(.20)
아동_94	.36***	.20***	.89	.22(.42)	.02(.15)	.29(.46)	.01(.12)
아동_95	.55***	.40***	.89	.38(.49)	.03(.18)	.35(.49)	.06(.23)
아동_97	.39***	.26***	.89	.13(.34)	.03(.18)	.19(.40)	.04(.20)
아동_98	.18**	.19**	.89	.44(.50)	.15(.36)	.16(.37)	.13(.33)
아동_99	.21**	.20***	.89	.47(.51)	.13(.33)	.13(.34)	.15(.36)
아동_100	.23**	.23***	.89	.44(.50)	.16(.37)	.16(.37)	.03(.17)
아동_101	.53***	.38***	.89	.34(.48)	.11(.32)	.39(.50)	.11(.32)
아동_102	.45***	.38***	.89	.72(.46)	.20(.40)	.42(.50)	.17(.38)

* $p < .05$, ** $p < .01$, *** $p < .001$

과의 상관을 분석한 통계치를 기초로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집단을 변별하는 A항목과 B항목을 선정할 수 있었던 원 검사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래서 원 저자의 기대치가 반영된 문항을 찾고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집단을 잘 변별할 수 있는 A항목을 선별하기 위하여 QACSO 각 문항의 집단 간 평균을 토대로 지적장애인 성범죄자가 가장 높은 평균(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을 보이는 문항들을 추가로 선별하였다. 문항 평균을 기초로 하여 임상척도의 문항을 선별한 결과, 강간 및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에서는 12문항, 관음증 척도에서는 5문항, 노출증 척도에서는 4문항, 스토킹 척도에서는 8문항, 데이트 성폭력 척도에서는 6문항, 동성 성폭력 척도에서도 6문항, 아동 성폭력 척도에서는 12문항, 총 임상척도 53문항에서 지적장애인 성범죄자가 가장 높은 평균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 간 평균을 토대로 선별한 QACSO 임상척도 문항들의 집단 간 평균 및 문항-전체 상관, Kendall의 tau_b, 문항이 삭제된 경우의 Cronbach's α 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집단 간 평균 비교를 통해 선별한 문항의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는 문항들이 집단을 잘 변별하는지 확인해보고자, 분산분석과 사후분석을 다시 실시했다. 분산분석과 사후분석 결과 및 집단별 QACSO 임상척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점수, 최대 점수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문항을 제거 및 선별하기 전 원 검사(임상척도 102문항)의 분산분석 결과 역시 괄호 안에 함께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임상척도 상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고,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가 임상척도 총점 및 임상 하위척도들에서 다른 집단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별됨을 알 수 있었다($p < .05$). 먼저 집단 간 QACSO 임상척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QACSO의 총점 및 하위척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장애인 성범죄자가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지적장애인들이 두 번째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 저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지적장애가 없는 성범죄자들과 일반인의 평균 상의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지적장애가 없는 성범죄자, 일반 지적장애인, 일반인으로 구성된 네 집단이 QACSO 임상척도 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산분석 결과, 임상척도 총점($F(3,216)=50.06, p < .001$), 강간 및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F(3,218)=46.35, p < .001$), 관음증 척도($F(3,218)=3.40, p < .05$), 노출증 척도($F(3,219)=10.04, p < .001$), 스토킹 척도($F(3,218)=22.24, p < .001$), 데이트 성폭력 척도($F(3,217)=16.41, p < .001$), 동성 성폭력 척도($F(3,217)=31.86, p < .001$), 아동 성폭력 척도($F(3,217)=35.58, p < .001$) 모두에서 준거집단을 유의하게 차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집단 간 평균 비교를 통해 선별한 문항이 각 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Duncan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강간 및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와 동성 성폭력 척도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지적장애인, 지적장애가 없는 성범죄

표 5. 집단 간 평균으로 선별한 QACSO 임상척도들의 총점 간 차이 분석

		<i>N</i>	<i>M(SD)</i>	<i>F(df1,df2)</i>	최소값	최대값
QACSO 임상척도 총점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c	32	21.47(7.71)	50.06(3,216)*** (원 문항 16.03***)	6	37
	성범죄자 ^a	86	8.03(6.27)		0	30
	지적장애인 ^b	31	14.55(7.36)		3	34
	일반인 ^a	71	6.52(5.10)		0	24
	합계	220	10.42(8.18)		0	37
QACSO 강간 및 여성 에 대한 태도 척도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d	32	4.97(2.18)	46.35(3,218)*** (원 문항 25.57***)	1	9
	성범죄자 ^b	87	1.77(2.00)		0	9
	지적장애인 ^c	31	3.45(1.91)		0	7
	일반인 ^a	72	.88(1.17)		0	7
	합계	222	2.18(2.25)		0	9
QACSO 관음증 척도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b	32	2.25(1.76)	3.40(3,218)* (원 문항 1.11)	0	5
	성범죄자 ^a	87	1.39(1.27)		0	5
	지적장애인 ^a	31	1.58(1.41)		0	5
	일반인 ^a	72	1.40(1.31)		0	5
	합계	222	1.55(1.40)		0	5
QACSO 노출증 척도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b	32	1.50(.84)	10.04(3,219)*** (원 문항 1.68)	0	4
	성범죄자 ^a	88	.77(.80)		0	3
	지적장애인 ^a	31	.87(.81)		0	3
	일반인 ^a	72	.64(.64)		0	2
	합계	223	.85(.80)		0	4
QACSO 스토킹 척도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c	32	3.22(1.54)	22.24(3,218)*** (원 문항 3.88*)	1	7
	성범죄자 ^a	87	1.22(1.04)		0	4
	지적장애인 ^b	31	2.10(1.54)		0	6
	일반인 ^a	72	1.31(1.31)		0	6
	합계	222	1.66(1.46)		0	7

(계속)

		N	M(SD)	F(df1,df2)	최소값	최대값
QACSO 데이트 성폭력 척도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c	32	2.41(1.52)	16.41(3,217)*** (원 문항 15.27***)	0	5
	성범죄자 ^a	87	.77(1.04)		0	4
	지적장애인 ^b	31	1.68(1.56)		0	5
	일반인 ^a	71	.94(1.13)		0	5
	합계	221	1.19(1.35)		0	5
QACSO 동성 성폭력 척도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d	32	4.66(1.19)	31.86(3,217)*** (원 문항 3.40**)	0	4
	성범죄자 ^b	87	4.52(1.00)		0	5
	지적장애인 ^c	31	4.48(1.21)		0	4
	일반인 ^a	71	3.85(1.53)		0	3
	합계	221	4.32(1.13)		0	5
QACSO 아동 성폭력 척도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e	32	5.13(2.50)	35.58(3,217)*** (원 문항 17.62***)	0	10
	성범죄자 ^a	87	1.61(2.07)		0	8
	지적장애인 ^b	31	3.45(2.35)		0	8
	일반인 ^a	71	1.17(1.43)		0	7
	합계	221	2.24(2.43)		0	10

* $p < .05$, ** $p < .01$, *** $p < .001$

자, 일반인 순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네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이는 강간 및 여성에 대한 척도와 동성 성폭력 척도를 통해 지적장애인 성범죄자는 물론 다른 집단들도 변별 가능성을 알 수 있다.

임상척도 총점, 스토킹 척도, 데이트 성폭력 척도, 아동 성폭력 척도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가 가장 높은 평균을 가진 집단, 비범죄자 지적장애인이 두 번째로 높은 평균을 가진 집단, 지적장애가 없는 성범죄자와

일반인이 가장 낮은 평균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되고, 이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5$). 즉,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가 각 척도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인지왜곡을 나타냈고, 일반 지적장애인이 그 다음으로 높은 인지왜곡을 보이며, 지적장애가 없는 성범죄자와 일반인은 가장 낮은 인지왜곡을 보이지만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선별된 53개의 문항들이 임상척도 총점과 스토킹, 데이트 성폭력, 아동 성폭력 척도를

통해 지적장애인 성범죄자를 변별할 수 있음은 물론, 지적장애인과 지적장애가 없는 사람이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증 척도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와 다른 집단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p < .05$),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가 지적장애가 없는 성범죄자, 일반 지적장애인, 일반인보다 노출증과 관련한 높은 인지 왜곡 점수를 나타냈다. 스토킹 척도에서는 일반인과 다른 집단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p < .05$), 이를 통해 일반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지적장애가 없는 성범죄자, 일반 지적장애인 보다 스토킹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 성폭력 척도는 분산분석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집단들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관음증 척도와 노출증 척도는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집단이 높은 평균 점수로 다른 집단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즉, 선별된 53개 문항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집단이 다른 집단들 보다 각 척도에 해당하는 높은 인지왜곡을 가지고 있어 관음증 척도와 노출증 척도로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를 변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53문항의 임상척도가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를 잘 변별할 수 있으므로 평균을 기초로 선별한 총 53문항이 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최종 선별 문항

신뢰도와 평균 비교를 기초로 최종적으로 선별한 문항의 수와 하위척도별 내적일치도, 문항 총점 간 상관계수의 평균은 표 6과 같다.

표 6. QACSO의 하위척도

	원 문항 수	최종 선별된 문항 수	최종 선별 문항 내적일치도	최종 선별 문항의 문항-총점 간 상관 평균
강간 및 여성에 대한 태도	25	12	.72	.43
관음증	10	5	.62	.42
노출증	11	4	.21	.38
스토킹	16	8	.50	.39
데이트 성폭력	10	6	.58	.44
동성 성폭력	12	6	.56	.39
아동 성폭력	18	12	.76	.42
사회적바람직성	5	5	.44	.56
전체	107	58	.90	.43

QACSO의 타당도

QACSO의 최종 선별한 53개 문항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QACSO의 총점 및 하위척도(강간 및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 노출증 척도, 데이트 성폭력 척도, 아동 성폭력 척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다른 유사 척도들(청소년 인지왜곡 척도, 데이트 성폭력 인지도 척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총점과 문항들(청소년 인지왜곡 척도 중 노출증을 측정하는 문항 2개(1번, 6번)의 총점, 강간통념을 측정하는 문항 3개(5번, 8번, 10번)의 총점, 소아성애를 측정하는 문항 3개(4번, 7번, 9번)의 총점)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문항을 선별하기 전 QACSO의 원 검사 문항(107문항)으로 분석한 결과도 괄호 안에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QACSO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본 결과,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는 모든 척도들 간에 유의미한 수준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QACSO 임상척도의 총점은 청소년 인지왜곡 척도 총점과 높은 상관을 보여($r=.54, p<.001$), QACSO 임상 척도의 총점이 적절한 공인 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QACSO의 타당도 척도인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MC-13) 총점은 서로 반대의 채점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척도에서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r=-.16, p<.05$)이 나타나, QACSO가 임상척도는 물론 타당도 척도에서도 적절한 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상관계수가 .30 이하로 다소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QACSO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가 성과 관련된 사회적 바람직성만을 측정하는데 반해,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MC-13)는 성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QACSO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문항의 수가 5개로 적고, 다소 낮은 내적일치도와 총점간의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QACSO의 임상척도 중 하나인 데이트 성폭력 척도와 데이트 성폭력 인지도 척도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r=.26, p<.001$)을 보이는 하였으나,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역시도 QACSO의 데이트 성폭력 척도는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인지왜곡을 측정하는데, 데이트 성폭력 인지도 척도는 데이트 성폭력 상황을 어느 정도로 심각한 성폭력으로 인지하는지에 대한 체감도를 측정한다는 측정방식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때문에 전반적인 성에 대한 인지왜곡을 포괄하는 QACSO 임상척도 총점 및 청소년 인지왜곡 척도 총점과의 상관이 오히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QACSO 임상척도 총점에 대한 공인 타당도는 확인되었으나, 모든 하위척도들에 대한 공인타당도를 분석하지 못한 만큼, 확인되지 않은 하위척도들의 공인타당도에 대한 판단은 보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에 성에 대한 인지왜곡을 측정하는 평가 도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대부분의 QACSO 하위 척도들과 비교할 만한 척도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위척도들에 대한 타당도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QACSO의 하위척도가 측정하는 내용과 좀 더 유사한 인지왜곡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확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QACSO의 하위척도 간 수렴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QACSO의 임상척도 3개(강

(N=223)

표 7. 준거 척도들의 QACSO 총점 및 하위척도와의 상관관계

	QACSO							청소년인지에구 척도			테이트 성폭력 인지도 척도 총점	
	강간 및 임상적도 총점	강간 및 여성애 대항 태도	노출증	테이트 성폭력	아동 성폭력	사회적 바람직성	충점	강간통념	노출증	소아성에		
강간 및 여성애 대한 태도	.85*** (.85***)											
노출증	.63*** (.59***)	.45*** (.45***)										
테이트 성폭력	.76*** (.78***)	.56*** (.56***)	.47*** (.41***)									
아동 성폭력	.78*** (.74***)	.59*** (.55***)	.41*** (.28***)	.45*** (.51***)								
사회적 바람직성	.087 (.24***)	-.00 (.07)	.04 (.12)	.17* (.18**)	-.07 (.10)							
충점	.54*** (.63***)	.37*** (.47***)	.35*** (.45***)	.42*** (.47***)	.43*** (.51***)	.21** (.21**)						
강간통념	.46*** (.53***)	.33*** (.40***)	.29*** (.35***)	.35*** (.38***)	.33*** (.40***)	.21** (.21**)	.82***					
노출증	.38*** (.46***)	.23*** (.32***)	.23*** (.36***)	.30*** (.35***)	.32*** (.37***)	.14* (.14*)	.77***	.52***				
소아성에	.46*** (.52***)	.30*** (.38***)	.36*** (.39***)	.35*** (.42***)	.39*** (.46***)	.10 (.10)	.78***	.45***	.47***			
테이트 성폭력 인지도 척도 총점	.32*** (.39***)	.24*** (.27***)	.23** (.31***)	.26*** (.24***)	.14* (.23**)	.25*** (.25***)	.31***	.42***	.17*	.10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총점	-.05 (-.06)	-.09 (-.05)	-.04 (.00)	-.05 (.00)	.03 (-.05)	-.16* (-.16*)	-.06	-.05	-.05	.00	-.15*	

*p < .05, **p < .01, ***p < .001

간 및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 노출증 척도, 아동 성폭력 척도)와 이와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는 청소년 인지왜곡 척도의 세 종류 문항(강간통념 문항 총점, 노출증 문항 총점, 소아성에 문항 총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QACSO의 강간 및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와 청소년 인지왜곡 척도의 강간통념 척도가 뚜렷한 정적 상관($r=.33, p<.001$)을 보였다. 그리고 QACSO의 노출증 척도와 청소년인지왜곡 척도의 노출증 문항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r=.22, p<.01$)을 나타냈고, QACSO의 아동 성폭력 척도와 청소년 인지왜곡 척도의 소아성에 문항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r=.39, p<.001$)이 확인되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QACSO 임상척도의 총점도 청소년 인지왜곡 척도 총점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r=.54, p<.01$). 즉, 유사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척도 사이에 총점은 물론 하위 척도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므로 QACSO가 적절한 수렴타당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종 선별한 QACSO 문항의 하위척도 간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고자 QACSO와 다른 유사 척도들의 총점과 하위척도 상의 상관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QACSO의 타당도 척도인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상관계수가 다른 척도들의 상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특히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MC-13)의 총점이 다른 총점 및 하위척도들과 0에 가까운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성에 대한 인지왜곡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과 달리,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해 바람직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가장 다른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변별타당도를 파악하기에 적합

하다.

데이트 성폭력 인지도 척도의 총점과 QACSO의 다른 임상척도들과의 상관 역시 .14-.26 수준으로 다른 척도들에 비해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QACSO의 노출증 척도와 아동 성폭력 척도의 상관이 .41, QACSO의 노출증 척도와 청소년 인지왜곡 척도의 강간통념 문항과 소아성에 문항의 상관도 각각 .29, .36로 다른 척도들의 상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QACSO가 서로 다른 구성개념을 변별하여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QACSO의 강간 및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가 QACSO의 노출증 척도, 데이트 성폭력 척도, 아동에 대한 성폭력 척도와 $r>.45$ 의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고, 청소년 인지왜곡 척도의 강간통념 문항들 역시 청소년 인지왜곡 척도의 노출증과 소아성에 척도와 $r>.45$ 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강간 및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와 강간통념 문항들이 같은 척도 내의 다른 하위척도의 내용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QACSO의 노출증 척도와 청소년 인지왜곡 척도의 노출증 문항 간의 상관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r=.23, p<.01$)을 보이기는 하지만 QACSO의 노출증 척도와 다른 척도들의 상관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이는 QACSO의 노출증 척도가 노출증과 관련된 성에 대한 인지왜곡 보다 다른 하위척도들과 관련된 성에 대한 인지왜곡을 더 잘 측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청소년 인지왜곡 척도의 노출증 문항이 2개에 불과하고 QACSO의 노출증 문항 역시 4개뿐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문항을 선별하기 전 원 검사 문항으로 분석한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위척도별 최종 선별 문항의 변별도 평균

58개의 QACSO 최종 선별 문항 중 임상척도에 해당하는 53개 문항의 문항변별도를 구하기 위해 문항-전체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QACSO의 임상 하위척도들의 문항변별도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최종 문항을 선별하기 전의 원 문항들로 구한 문항변별도의 평균은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강간 및 여성에 대한 태도는 .43(.33)로 검사 총점에서의 분산 중 18%를 예측할 수 있고, 관음증 척도는 .42(.35)로 검사 총점에서의 분산 중 18%, 노출증 척도는 .38(.26)로 검사 총점에서의 분산 중 14%, 스토킹 척도는 .39(.28)로 검사 총점에서의 분산 중 15%, 데이트 성폭력 척도는 .43(.38)로 검사 총점에서의 분산 중 18%, 동성 성폭력 척도는 .39(.17)로 검사 총점에서의 분산 중 14%, 아동 성폭력 척도는 .42(.32)로 검사 총점에서의 분산 중 17%를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최종 선별한 QACSO 임상 하위 척도는 .38-.56의 양호한 수준의 문항변별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17-.35 수준이었던 원 검사의 문항변별도보다 현저히 향상된 수치이다.

논 의

지적장애인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상당 비율이 같은 지적장애인이며(Brown & Turk, 1995; Murphy, Sinclair, Hays, Heaton, Powell, Langdon & Craig, 2010; Sobsey & Doe, 1991; Turk & Brown, 1993), 지적장애가 있는 성 범죄자들이 아동(Blanchard, Watson, Choy, Dickey, Klassen, Kuban, & Feren, 1999), 특히 남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정도가 일반 성범죄자들보다 많다(Walker & McCabe, 1973)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닌다는 선행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도구가 전무한 국내 실정은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것에 한계로 작용하였다. 지적장애인을 평가하는 도구는 지적장애인의 이해력을 반영해야 하므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거나 표준화 되지 않았다면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선행연구들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들의 성에 대한 인지왜곡이 성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확인하고(Abel et al., 1984; Marshall & Barbaree, 1989; Marshall & Eccles, 1991; Murphy, 1990; Salter, 1988), 국내의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들의 성에 대한 인지왜곡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의 성에 대한 인지왜곡을 평가하는 QACSO 검사(2004년 버전 107문항)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국내 피검자들에게 적합한 A항목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별하여 제안하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32명, 지적장애가 없는 성범죄자 88명, 지적장애가 있는 비

범죄자 31명, 일반인 72명, 총 2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선별의 필요성을 확인 하고,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 및 내적일치도를 기초로 107문항 중 C항목에 해당하는 임상척도 12문항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남은 90문항에 대한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외국의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지적장애인들이 지적장애가 없는 성범죄자와 일반인보다 높은 성에 대한 인지 왜곡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적장애인의 성범죄 행동에서 성에 대한 인지 왜곡이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원 저자의 연구 결과와 달리, A와 B항목에 해당하는 이 90개의 문항들로는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와 일반 지적장애인을 변별할 수 없었다. QACSO 원 문항들로 실시한 분산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얻었는데, 성에 대한 인식이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르고 사회적 풍토에 영향을 받는 영역인 만큼, 서구에서 만들어진 QACSO 검사를 국내에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를 위한 평가도구에서 일반 지적장애인과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를 변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집단을 잘 변별하는 A항목에 부합하는 문항들을 선별하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들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지 않는 문항들을 추가로 제거하였다. 그 결과, 국내 지적장애 성범죄자들을 보다 정확히 변별해낸다고 판단된 최종 선별 문항들은 임상척도 53문항과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5문항, 총 58문항이었고, 이 문항들은 지적장애가 있

는 성범죄자를 다른 집단과 잘 변별하였다. 최종 선별한 임상척도 53문항의 내적일치도는 .90(102개 원 문항 .89)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각 임상 하위척도의 총점과 문항 간의 상관 평균은 .38-.44로 양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유사한 척도들과의 비교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44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먼저 샘플 크기와 편향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자와 일반 지적장애인의 샘플 크기는 각각 32, 31명으로, 지적장애가 없는 성범죄자와 일반인의 수가 각각 88, 72명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변별력이 부족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성범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샘플의 편향이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총 120명의 성범죄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가 35명(29.1%)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반 샘플이 추가될 경우 연구 결과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소수의 관련 범죄자가 포함되었던 관음증과 노출증 척도는 각각 최종 선별 문항에서 5문항, 4문항에 그쳤지만, 아동 성폭력 척도는 12문항이 최종적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이 샘플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추측하게 한다. 즉, 샘플이 증가하는 경우 유의미하지 않았던 하위 척도들도 변별력이 증가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문항들이 신뢰롭고 타당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들이 구치소에 소속되었던 만큼 재판이나 심사의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과거 성범죄로 입건됐던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나 현재 보호관찰 중인 성범죄자들이 인지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을 가능성 역시 연구 결과를 오염시킬 수 있다. 게다가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자의 K-WAIS-IV 검사의 FSIQ의 평균은 61.34 ($SD=11.39$)이고, 일반 지적장애인의 K-WAIS-IV 검사의 FSIQ의 평균은 49.87 ($SD=8.72$)로 평균 10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도 문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차이를 불러왔을 수 있으므로 고려해봐야 할 점이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내적일치도가 .44로 낮으며 문항 수 역시 5개로 적어 부적절하다고 추정되는 문항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였다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솔직하게 응답한 것으로, 낮은 점수들은 피검자가 모든 질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응답하였을 것임을 시사한다. 원 검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가 각 준거집단에 걸쳐 집단 점수의 평균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검자들이 0,1채점 체계를 사용하여 3점 이상의 응답을 했거나, 0,1,2 채점을 사용하여 6점 이상의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평균 3.36($SD=1.22$)으로 최대 점수 5점에 비해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가 낮은 내적일치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별도의 검증 과정 없이 단순히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 검사와 마찬가지로 몇 점 이하일 경우 검사 결과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낮은 점수인지 분명한 기준점을 제시할 수 없었으므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문항선별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도록

문항을 선별하였으므로,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는 것보다 더 이상 타당도 지표가 될 수 없다. 즉, 최종 선별된 58 문항의 타당도는 다시 재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치소 혹은 보호관찰소에 소속되어 있거나 복지관에 거주하지 않고 단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지속적인 연구 참여가 어려워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검사자간 신뢰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사례수 부족으로 인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다. 만약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한국판 QACSO 검사의 효용성은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QACSO 검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를 변별하고 인지왜곡 상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토대로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치료 및 처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유용한 검사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의 평가 및 치료와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박중규 (1999). 아동의 방해적 문제행동에 대한 인지-행동적 부모훈련과 행동적 부모훈련의 치료효과 비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박중규 (2002). 청소년용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인제의학*, 23(4), 493-500.
- 신경백, 이영준, 김경란, 김현정, 송동호 (2012). 국내 성폭력 가해자의 정신의학적, 심리학 적 특성. *신경정신의학회지*, 51, 170-177.
- 이수정, 고려진, 박혜란 (2008).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도 연구. *형사정책연구*, 19(4), 1-37.
- 장윤경 (2002).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데이트 성폭력 인지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순택, 김지혜, 박광배, 최진영, 홍상환 (2012). K-WAIS-IV 기술 및 해석요강. 대구: 한국심리(주).
- Abel, G. G., Becker, J. V., & Cunningham-Rathner, J. (1984). Complications, consent, and cognitions in sex between children and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7(1), 89-103.
- Blanchard R., Watson M., Choy A., Dickey R., Klassen P., Kuban N. & Feren D. J. (1999) Paedophiles: Mental retardation, maternal age and sexual orientation. *Archives of Sexual Behaviour* 28, 111-127.
- Beckett, R. C., & Fisher, D. (1994, November). Assessing victim empathy: A new measure. In *13th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 San Francisco*.
- Boer, D. P., Dorward, J., Gauthier, C. M., & Watson, D. R. (1995, September). Treating intellectually disabled sex offenders. In *Forum on Corrections Research* (Vol. 7, No. 3, pp. 30-33). <http://www.csc-scc.gc.ca/text/index-eng.shtml>.
- Brown, H., Stein, J., & Turk, V. (1995). The sexual abuse of adul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Report of a second two year incidence survey. *Mental Handicap Research*, 8(1), 3-24.
- Broxholme, S. L., & Lindsay, W. R. (2003).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a questionnaire on cognitions related to sex offending for use with individuals who have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7(6), 472-482.
- Cantor, J. M., Blanchard, R., Robichaud, L. K., & Christensen, B. K. (2005). Quantitative reanalysis of aggregate data on IQ in sexual offenders. *Psychological Bulletin*, 131(4), 555-568.
- Crowne, D. P., & Marlowe, D. (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4), 349.
- Furey, E. M. (1994). Sexual abuse of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Who and where. *Mental retardation*.
- Hayes, S. (2002, June). Adaptive behaviour and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sex offender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Inaugural Conference of IASSID Europe, University College Dublin*.
- Keeling, J. A., Beech, A. R., & Rose, J. L. (2007). Assessment of intellectually disabled sexual offenders: The current position.

-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2), 229-241.
- Kolton, D. J. (1996). *A modified version of the Abel-Becker Cognition Scale for use with intellectually disabled sex offenders* (Doctoral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 Kolton, D. J., Boer, A., & Boer, D. P. (2001). A revision of the Abel and Becker Cognition Scale for intellectually disabled sexual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3(3), 217-219.
- Langdon, P. E., & Talbot, T. J. (2006). Locus of control and sex offender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0(4), 391-401.
- Lindsay, W. R. (2002). Research and literature on sex offenders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6(suppl. 1), 74-85.
- Lindsay, W. R., Michie, A. M., Whitefield, E., Martin, V., Grieve, A., & Carson, D. (2005). Response patterns on the questionnaire on attitudes consistent with sexual offending in groups of sex offender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19, 47-53.
- Lindsay, W. R., Whitefield, E., & Carson, D. (2007). An assessment for attitudes consistent with sexual offending for use with offender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2, 55-68.
- Lindsay, W. R., Whitefield, E., Carson, D., Broxholme, S., & Steptoe, L. (2004). Questionnaire on attitudes consistent with sexual offending (QACSO): Administration and scoring manual. *Unpublished manuscript*. (Available from Bill Lindsay: bill.lindsay@tpct.scot.nhs.uk).
- Marshall, W. L., & Barbaree, H. E. (1989). Sexual violence. *Clinical approaches to violence*, 205-246.
- Marshall, W. L., & Eccles, A. (1991). Issues in clinical practice with sex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1), 68-93.
- Murphy, W. D. (1990). Assessment and modification of cognitive distortions in sex offenders. In *Handbook of sexual assault*. Springer US, pp.331-342.
- Murphy, G., Powell, S., Guzman, A.-M., & Hays, S.-J. (2007) Cognitive-behavioural treatment for 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sexually abusive behaviour: A pilot stud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1(11), 902-912.
- Murphy, G. H., Sinclair, N., Hays, S. J., Heaton, K., Powell, S., Langdon, P. E., ... & Craig, L. (2010). Effectiveness of group cognitive behavioural treatment for 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t risk of sexual offending.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23(6), 537-551.
- Reynolds, W. M. (1982). Development of reliable and valid short forms of the Marlowe 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1), 119-125.
- Salter, A. (1988). *Treating child sex offenders and victims: A practical guide*. Sage.
- Sobsey, D., & Doe, T. (1991). Patterns of sexual abuse and assault. *Sexuality and Disability*, 9(3), 243-259.
- Sugarman, D. B. (1996). Risk marker analysis of

- husband-to-wife violence: A continuum of aggress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6(4).
- Turk, V., & Brown, H. (1993). The Sexual Abuse of Adul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Results of a Two Year Incidence Survey. *Mental Handicap Research*, 6(3), 193-216.
- Walker N. & McCabe S. (1973). *Crime and Insanity in England*. Edinburgh University Press, Edinburgh.
- Wilson, K. E. (1998). Differences in cognitive distortions between Caucasian and African American male adolescent sexual offenders.
- 1 차원고접수 : 2014. 11. 03.
심사통과접수 : 2014. 11. 17.
최종원고접수 : 2014. 11. 21.

A Korean Validation Study of the QACSO (Questionnaire of Attitudes Consistent with Sexual Offending)

Eun-Young Jang

Soo Jung Lee

Jangkyu Lee

Kyonggi University

National Forensic Hospit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the QACSO, (Questionnaire of Attitudes Consistent with Sexual Offending; Lindsay, Whitefield, Carson, Broxholme, Steptoe, 2004) which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attitudes consistent with sexual offending of sex offender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D) and to select *A* items with the most acceptable statistical properties and significantly discriminate sex offenders with ID from the other groups. Total of 223 participants including 32 sex offenders with ID in jail or community welfare center, 88 sex offenders under probation without ID, 31 non-offenders with ID in community welfare center, and 72 undergraduate students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of this study. Study results are as following. Through item analysis considering the internal consistency, item-total correlations, and the mean score for each group, 58 questions were suggested to be 'finally selected questionnaires' that correspond to the *A* items. 58 questions consist of 53 questions for clinical subscales and 5 questions for 'social desirability' scale. 53 questions for seven clinical subscales ('rape and attitudes to women', 'voyeurism', 'exhibitionism', 'stalking and sexual harassment', 'dating abuse', 'homosexual assault' and 'offences against children') demonstrated high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alpha=.90$) and item-total correlations ($r=.38-.44$). Also, 'finally selected questionnaires (58 questions)' had a good convergent, discriminant and criterion validity and it significantly discriminated sex offenders with ID from sex offender group without ID, non-offenders with ID, and non-offenders without I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Korean version of the QACSO has adequate reliability and validity.

Key words : QACSO, cognitive distortion, intellectual disability, sex offenders, attitudes consistent with sexual offending